



순서대로 죽는 건 아니란다.

좀 일찍 찾아왔던 나의 사춘기에 서둘러 중지부를 찍은 우리 어머니의 한 마디였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따금씩 그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도 어머니는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신다. 엄마, 우리 집에선 내가 제일 막내데 아빠 엄마 언니 다 죽고 나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해요. 초등학교를 절반도 안 마친 3학년 때 나는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혼자 곱씹으며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다. 하긴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워낙 빨라져 미운네 살에 4,5학년이면 대체로 초경을 치른다 하니 초등학교 3학년과 사춘기라면 과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도 아니다. 어쨌든 섬세함이라든가 어두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막내딸이 어울리지도 않게 '고민'이란 걸 털어놓자 무방비 상태의 우리 어머니는 그만 "나이순으로 죽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버리셨단다. 어머니가 아뽀싸! 하실 새도 없이 어머니의 그 말씀은 "걱정 마라 내 딸아 너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강한 전류를 타고 이미 내 몸 속을 찌르르 흐르고 있었다. 나의 인생무상과 사춘기는 미처 약화될 틈도 없이 이 전기충격으로 말끔히 치료됐다.

죽음이란 건 고통, 절망, 외로움, 기타 등등 내가 주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나쁘고 무섭고 지독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나쁘고 무섭고 지독한 것이었다. 죽음에 대한 나의 고민은 나의 죽음이 아닌 내 가족의 죽음, 그리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홀로 남겨질 나의 슬픔과 외로움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고금의 진리는 언뜻 깨달았으되 "나도 결국은 죽는다"는 실존적 사유의 문턱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것을 막았을 것이다.

동감이야.

감미로움과 애뜻함을 환기하는 죽음을 동경하게 만든 영화 <고스트(사랑과 영혼)>의 명대사다. 죽음은 사랑하는 이의 완전한 소멸이 아닐 뿐더러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결코 추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매혹을 동반하는 죽음이라니. 애절한 사랑을 뒤로 한 죽음에는 낯설지만 완전히 물리칠 수

상상의 박물관 견문기

없는 독특한 이끌림이 존재하고 있었다. 죽은 자에게 죽음은 휴식이었고 남은 자에게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저자 필립 아리에스의 표현대로 《죽음 앞의 인간》은 천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상상의 박물관'이다. '순서대로 죽는 건 아니란다'와 '동감이야'의 작은 일화들은 죽음에 대한 나의 상상력에 변화를 가져 온 사소한 사건들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또한 좀 거창하게 말해서 죽음과 관련된 인류문화의 한 소묘小描이기도 했다. 역사학이란 '타인을 향해 떠나는 여행'이라고 했던가(《사생활의 역사》서문 중에서). 아리에스는 그 여행을 귀환의 기억 없는 모험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얼마간을 살아오면서 내게 죽음이란 대체로는 두려움을, 때로는 허무를, 때로는 황홀을 수반하며 서로 다른 과장으로 가끔씩 나를 흔들고는 있었지만, 묘지를 지나다가 널려 있는 유골들 중에서 무심코 두개골 한 개를 주워드는 햄릿과 나는 기껏해야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간직하고 있을 따름이다. 심지어 역사의 한 시기에 형성되었던 가족주의라는 감수성이 탄생되기 이전에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남은 자에게 심각한 외상을 남긴다는 현대 심리학의 전제—심리학자들은 그것을 항구적인 인간 '본성'이라 말한다—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해골을 만지작거리고 묘지에서 빵을 굽거나, 공포와 매력을 동시에 발산하는 죽음에 이끌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시체해부를 구경했던 시대의 인류는 현대인인 나의 소묘小描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었다.

아리에스가 보여주었듯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역사를 통해 많은 굴절과 변화를 겪었다. 물론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과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괴로움을 함께 느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는 와중에도 자신을 관객spectator으로, 세계의 상처를 연극의 한 장면scene으로 치환시킴으로써 마침내 그것을 한갓 굉장한 구경거리spectacle로 전락시키는 음울한 전도가 유독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 같다. 고대 로마 검투사들의 비참한 결전이나 과장된 몸짓으로 잔혹함을 연출하는 현대 프로레슬러들의 연기는 이러한 전도를 보여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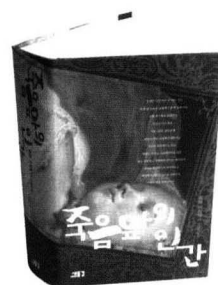
한 전형이 아닐까.

생로병사의 비밀을 캐내어 과학의 힘으로 인류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현대의학의 처절한 몸부림에는 죽음으로 대표되는 인간적 고통을 구경거리가 아닌,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비장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추하게 만들다 못해 의료영역으로 흡수시킨 현대문명에 대한 아리에스의 비판적 통찰을 우리는 가까이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무엇보다도 임종환자에게 끝까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애정에 기반한 기만'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리라. 죽음을 수락하는 것과 죽음조차 정복하려는 태도는 다른 것이다. 죽음을 수치로 여기게 하는 지금의 사회에서나 그것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을 아리에스는 분명히 지적한다.

머나먼 옛날 모든 죽음이 공개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슬픔은 공동체의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졌기에 몇몇 가족이 그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장렬히 나서서 죽음을 격퇴할 필요도(헌신적인 의사처럼 말이다), 슬픔을 억누르며 애써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듯 가장하는 가족들의 노력이 요구될 까닭도 없었기에,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의사나 가족들에 의해 강탈당하지 않았다. 박물관을 나오며 든 마지막 생각이었다. **☞**

이 글을 쓴 손유경은

문화기획집단 <퍼스펙>의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대담한 책읽기》, 《인텔리겐차》의 공저자다.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외국어대 강사로 있다.



《죽음 앞의 인간》 필립 아리에스 지음 | 고선일 옮김 | 새물결 | 1,120쪽 | 값 43,000원